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포천YMCA 창립 발기인대회

포천YMCA창립을 위한 발기인대회가 11월23일 오후7시 포천여성회관 3층 청성홀에서 최치선 창립준비위원회 부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이날 대회는 조승환 목사의 개회기도, 송영섭 창립준비위원장의 개회사 및 인사말씀, 안경 부위원장의 내빈소개, YMCA목적문 낭독, 선우담 서기의 경과보고, 최홍선 전속년위원의 창립선언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창립 발기인대회에서 발표된 포천YMCA창립 선언문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1백여명의 회원들이 뜻을 모아 YMCA 창립에 선뜻 나서게 되었고 오늘 그 결의를 다짐하려 한다”며 “포천에서 살고 포천을 사랑하고 살기 좋은 포천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한다는 사명을 가지고 헌찬 항해를 시작하려 한다”고 밝혔다.

특히 포천YMCA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살기 좋고 우애가 넘치는 아름다운 도시, 그리스도의 사랑과 향기가 진동하는 포천을 만들어 가려고 한다.

더 나아가 한반도 한 복판에 자리한 우리의 포천을 생명과 평화의 도시로 만들어 가려고 한다. 이러한 사명을 위해 부를 받은 포천 YMCA 창립발기인들은 자랑스런 포천YMCA를 만들어 우리 후손들에게 같이 같이 물려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날 발기인대회에는 YMCA살뜰함창



포천 YMCA창립발기인대회가 11월23일 오후 7시 포천여성회관 3층 청성홀에서 개최됐다.

단(단장 윤명순)과 YMCA리틀야구단(단장 장호호) 창단식도 함께 실시했다. (관련기사 15면)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Essay

선택의 중요성



윤숙
포천YMCA창립위원회

“부산 영도다리 밑에 지난 대선때 투표 잘못된 손가락을 잘라 버린 것이 불고기보다 많이 동등 떠났다.” 어느 교수님 칼럼란에 써 있는 글이다. 신문을 보다 오랜만에 웃음을 터트렸다. 우리 사는 세상 좋은 일에 웃는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잊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웃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없다.

남들은 별 이상한 소리한다고 할지 모르지만 낙엽이 쌓인 아파트 뒷마당 벤치에 40대 후반의 젊은 남자가 긴장된 눈빛으로 생활정보신문을 유심히 훑어보고 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지나쳤는데 그 모습이 자꾸만 눈에 띄는 것이 아닌가? 일지러리를 찾는가보다 생각이 했지만 타들어 가는 그 사람의 속마음이 보이는 것 같아 내 심사가 편하지 않은 것은 쓸데없는 기우인지 몰라도 이 사회에 그런 사람이 많다는 것이 안타까운 건 사실이다.

위기에 처한 시민들이 살아갈 용기와 지혜를 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결의 묘안책을 마련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지난 5월 선거때 투표일을 13일 정도 앞두고 시의원 연봉정책추진위원회에

서 몇 번의 토론과 여론조사, 타 시군의 금액에 비교하면서 연봉정책 결론이 났다. 그런데 4년 임기동안 해마다 새로운 추진위원이 결성되어서 연봉을 올려 준다는 것이다.

이것이 타당치 않다고 발언을 했지만 담당 공무원은 “중앙정책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니 어쩔 수 없다”는 답변이 었다.

어찌 이럴수가? 임기동안 지역발전과 성과도의 투명한 결과가 있을 때 올려주어도 좋을지 모르는데 해마다 업시키다는 것은 앞으로 치러야 할 지방선거에 어떤 불씨의 요인이 작용될지 모르겠다.

그럼에도 어느 시의원 후보는 당선되기도 않은 상태에서 엄청난 연봉제시를 부탁한다고 전화를 걸어왔다. 평소 신뢰하던 사람에게서 듣는 소리는 허탈한 기분에 앞서 묘한 분노마저 느끼게 했다.

본인의 하루양식이 해결되고 진정 지역사회의 위해 봉사하고 노력한다면 연봉의 반은 고소스러운 이웃에게 돌려주겠다는 마음은 가져 볼수 없을까? 어려운 세대를 살고 있는 마음아픈 사람들의 끈기 같은 소망일지는 몰라도 세위진 개인이 적절하게 쓰여지고 모든 지도자들에게서 자기인의 능력발휘로 살기 좋은 포천시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자유기고

주민들의 희망사항



이희연
포천YMCA창립위원회

근래에 들어 포천을 남쪽과 북쪽의 두영향권으로 나누어 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 이유는 우리 모두의 책임인 몇 가지 있는데 먼저 이른바 남쪽의 주민이 생활속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요약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포천은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또는 지정학적으로 영평권을 기준으로 해서 남쪽 영향권과 북쪽 영향권으로 나뉘어 온 것은 한국전쟁 이후에 자연스레 발생된 일이다. 영평과 포천의 경계와 포천과 운현의 지역적 구도에서 연유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현재 포천의 남쪽 지역의 주민들의 불만이 일어나고 그 것이 여론의 표본인 이른바 솔자리 안주로 많이 등장하고 있어 정리를 보고자 한다. 소홀을 지역의 주민들이 가장 먼저 말하고 있는 것은 인구에 비하여 턱없이 부족한 교육, 문화, 체육 시설 등의 부족 편중현상에 대한 불만을 많이 털어 놓았다. 뿐만 아니라 택지개발과 인구의 급속한 증가를 보이고 있는 송우 지역에서는 도서관이나 공원, 극장 하나 없는 적막강산이라는 의견이 가는 곳마다 팽배해 있다. 그리고 가구업자들의 경영난으로 상당한 고초를 겪고 있음에도 특별한 대책은 없이 그렇게 사양산업으로 고사하고 있는 것도 주변의 우려를 낳고 있다.

내촌지역에서는 기존 47번 국도가 확장될 때 여론에 의하여 시청방향으로의 진입로가 시내를 관통하게 설계되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출근시간에 계속되는 교통정체로 주민들의 엄청난 불만

을 야기하고 있어 지금이라도 직접 가산쪽으로 향하는 우회 도로가 개통되기를 주민들은 숙원하고 있다. 또한 가산에 주민들의 희망사항은 시내를 관통하는 극심한 정체를 막기 위해서 조속한 우회 도로의 개통과 가산-정교 간 중단된 도로의 재개, 그리고 도로변 배수시설의 확충과 하수도 문제의 해결도 간절하게 원하고 있다. 또한 동두천 방항으로의 도로 연결 문제도 조속한 시행을 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대안 없는 사업지연과 신도시와 관련하여도 아무런 성과도 없이 주민의 답답함을 쌓아가고 있다.

주민들의 의견은 현재 경동시장에서 내촌까지 오가고 있는 노선버스를 포천까지 연결시켜 남양주시 생활권과의 연결을 도모하고 내촌이나 근내에는 먹거리 타운과 같은 계획적인 수입원을 만들어내서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실효성 있는 정책들이 수립되어야 어려워지는 주민의 상권이 일부나마 회복을 이룰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군과 연계한 민간항공의 유치 운영을 통한 광역도로망의 구축도 고려해볼 일이라고 한다. 이외에도 행정과 예산집행의 손길을 기다리는 주민들은 많은데 너무 허황된 계획과 시행, 실현이 불가능한 생색내기 정책들의 발표는 시급히 시정해야 한다.

이렇듯이 인구비례나 객관타당성과 보편성이 없는 편중된 예산의 집행이나 권력의 남용은 주민들 간에 상대적 빈곤과 소외감을 낳아서 세월이 가면 갈수록 불신이 깊어갈 수 있다는 것을 올바르게 알아야 할 것이다.

아무췌로 보편적이고 객관적이며 누가 들어도 타당한 공정한 예산의 수립과 집행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실행만이 깊어가는 시민들의 오해의 문을 열수 있는 중요한 단초가 될 것이다.

자유기고

배추 시집 보내고 무우 장가 보낸 날



김순희
주부협(주)단
내촌지역부

겨울채비 하느라 배추 100여 포기 들러 펄 펄 따서 소금물에 풀어 넣고 퐁퐁하게 삶아 찌든 무우 깨끗이 씻어 채반에 놓는다. 한 여름날 뜨거운 태양을 뒤로하고 로타리 쳐달라 친구에게 부탁하고 고랑만 들어 내리찍는 태양 아래 비닐 씌어 흙에 안아주고 군데군데 너무 지팡이 구멍 뚫어 모판에 담긴 아기 배추 살짝 안아 그곳에 내려놓고 조카딸 여기 물 좀 올려 하며 소리 지르며 태양을 가득히 송알송알 팍 내를 뒤로하며 앉은뱅이 저리 가라 배추 쓰다듬어 이브자리 만들어주니 한 낮의 시간은 저만치 가네.

그래도 내 맘 알아주듯 무우씨 등성 들성 뿌려 놓고 이제 새싹 돌기 기다리며 시간 보내니 빗방울 노래하듯 조금씩 뿌려 놓아 새로 이삭은 뿌리 자리 잡아 놓고 보니 내 집이 바로 여기일세

하는 소곤거림 들리듯이 부쩍 부쩍 자라네.

무우란 놈 심술 부려 한곳은 대머리 되어 버려 걱정을 앞세우더니 며칠 뒤 어린 새싹 세상에 나가 구경하는 모습 바라보며 흐뭇한 맘 고지않네.

한 자라는 모습에 시샘 부렸는지 비란 날 한 동안 오지 않아 메마름에 지쳐서 배추도 속 타고 무우도 속 뚫는지 채 물어봐 태우 배추 팔이 말라가네.

물 좀 줘야 하는 데..... 하는 생각만 할 뿐 밭길을 어려운 먼 곳에 밭이 있어도 그놈들 넘 기없다는 생각만하다가 시간 가니 어느새 비가 흠뻑 내려 이제 속 팍 한 배추 이질질 시집보내고 무우 장가 보내니 찰떡같은 밭고랑이 텅 빈이 주인은 어디 가고 껌데기만 남아 내년을 기약하는 앞집 아저씨의 슬슬한 한마디만 맴돌고 마네.

이제 내내에나 보겠네...빨리 집 짓고 와야 되는데... (몇 평 안 되는 밭에 배추 600포기 무우 많이 심어 인연이 되는 분들과 나누어 먹었거든요) 키울 땐 힘들었는데, 손 쓸수록 지네요~~~~

따뜻한 사랑의 김장김치 전달

선단동 사랑의 김장담그기 행사

포천시 선단동(동장 강병수)는 ‘함께하는 사회-더불어 사는 선단’을 구현하기 위해 ‘사랑의 김장김치담그기 행사’를 선단동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장경섭) 주관으로 봉사단체인 선단동새마을부녀회(회장 이정희)와 선단사랑자살자사회(회장 김순자), 포천·선단여성농업인회(회장 이규진) 등 3개 단체 자원봉사자와 동직원 등 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11월 24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선단동 소재 A마트(대포정음식)와 LG하이프라자 포천점(지점장 이용범)에서 각종 양념 및 김장재료 약 200여만원에 합찬하여 두꺼비 및 소년소녀가장에게 김장김치를 전달해 훈훈한 정을 나누고 있어 우리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다.

또한 이날 선단동은 각급 봉사단체별로 김장김치를 배분하고 각 마을의 두꺼비노인과 소년소녀가장 등 120여세대를 직접 방문해 김장김치를 전달하면서 홀로

계신 어르신들과 청소년들을 위로하고 격려했다.

아울러 선단동사무소와 선단동주민자치위원회가 주최하고 선단동체육회(회장 이천후) 및 선단동청소년지도위원회(회장 강신범)에서 주관한 제2회 청소년 대축제 및 제3회 동민의 날 행사에 불우이웃돕기 일일차집과 1m/1원 모이기 걷기대회를 통해 모금한 기금 74만3천300원을 관내 불우이웃을 위해 써 달라며 포천신문 불우이웃돕기 창구에 기탁해 화제가 되고 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校歌부르니 눈시울이 적셔오네”

개교52주년 기념 경북중학교총동문단합대회

포천시 가산면 소재 경북중학교 총동문회(회장 이관우)는 11월26일 200여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개교52주년 기념 단합대회를 개최하고 모교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해 동문들의 힘을 모아 나가자고 다짐했다.

이날 단합대회 기념식에서 이관우 회장은 “모교 경북중학교 사이클부의 활동상이 전국적으로 유명해지고 있고 동두천외고 등 실력 있는 학생들의 좋은 학교 진학 등 명문학교로 성장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모처럼 함께 한 이 자리에서 모교 발전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대화가 오고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그동안 모르고 지나다가 이번 단합대회를 통해 알게 돼 참석한 이정부시 교의 김시강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제18회 졸업생으로 그동안 찾아뵙지 못해 죄송하다”며 “항상 경북중학교 졸업생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고 있으며 모교가 명문학교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



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단합대회는 이희용(포천연극협회 회장) 동문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교가를 잇는 동문들을 위해 1회 들려주고 제창하도록 하여 동문들의 눈시울이 뜨거워지기도 했다고 한다.

이날 행사는 족구 등 체육행사와 서로 간의 화합과 단합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동문찾기에 나서 연대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세상일은 마음먹기 달려있다”

엄앵란 영화배우 대진대 CEO 과정 부부특강

대진대학교(총장 이천수)는 11월22일 오후6시 대진대학교 대학원 2층 세미나실에서 엄앵란 영화배우를 초청해 ‘그래도 세상은 살만하다’는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

이날 특강은 2006학년도 후기 대진대학교 CEO 과정 부부특강으로 실시했으며 100여명이 참석했다. 강연에 나선 엄앵란 영화배우는 “쑥스럽더라도 하루에 10회 이상 감사합니까”라는 말을 하면 하루종일 감사할 일만 생긴다”고 강조했다.

특히 18년 동안 비빔밥 장사를 하며 부도난 사업체를 다시 살려낸 경험을 살감나게 설명하면서 “내 마음속에 에너지를

만들어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세상일은 내가 마음먹기 달려있다”며 인식의 전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좌절하지 말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부인은 남편에게 모성에 발취하여 잘 대해주고 남편은 부인에게 1년에 한 번은 장신구를 선물하여 서로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것도 당부했다.

이날 강연에 참석한 수강생들은 “너무나도 값비싼 특강이었다”며 “오늘부터 실천해 보겠다”고 입을 모았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자유기고

포천여성낙농대학



이은미
서양철학(西洋哲學)과
1학년

오는 12월13일은 포천여성낙농대학 입학식이다. 포천에서는 처음으로 문을 여는 대학이다. 이 대학에는 낙농업을 하고 있는 여성낙농인들이 참가한다. 20여년동안 낙농업을 해왔지만 여성낙농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학이 문을 열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여성낙농대학은 목장의 참주인으로서 기본교육 최신정보의 교환, 목장의 수익 향상, 여가활동 및 친목도모를 목적으로서 여성낙농인의 역할과 위생적인 착유관리 사양관리 요령 등을 교육한다.

또 외부강사를 초빙해 여성골다공증 예방과 영양관리, 피부미용 관리, 남편이 짝하는 날, 열린음악회 방청 등 여성의 일반상식과 문화생활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

포천여성낙농대학은 우성사료가 주관해 1년 과정으로 포천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할 계획이다. 낙농대학은 매일 둘째 주 화요일 1시30분에 시작하여 2시간 동안 강의가 진행된다.

포천시 여성낙농인의 강렬한 배움의 의지와 열정으로 21세기 낙농사업은 여성에게 달려있는 경영인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여성낙농인의 참여가 기대된다.

포천여성낙농인 우리함께 열심히 공부하여 학사모를 쓸 수 있는 기쁨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 자선단체의 어느 목자가 결사하는 시민들을 상대로 인문소양 교육을 했다. 처음에 주변 사람들은 소용없다는 것이라고 만류했다. 그러나 그 목자는 이에 개의치 않고 꾸준한 인문소양 교육을 했다. 역사와 문화와 철학과 영학과 소설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삶과 상관없는 것 같은 내용을 가르쳤다. 일년 이년 삼년 계속되면서 소양교육을 마친 사람들이 자립의 길을 찾아가기 시작했다. 다시는 배식대 앞에 줄을 서지 않았다. 그들 스스로 자존심을 되찾은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 성공회 어느 신부가 같은 일을 시작한 것이다. 노숙자를 상대로 인문소양 교육을 했다. 인문소양 교육을 마친 사람들은 새로운 세상에 눈을 떴다. 자립하겠다는 의지를 되살렸다. 그들 역시 새로운 삶을 찾기 위해 스스로 떠났다.

기치로(氣治療) 봉사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한지도 여섯 5년이 다 되어간다. 수련장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몸공부’와 동시에 ‘맘공부’를 시작했다. ‘몸공부’와 ‘맘공부’를 시키는데 책이 필요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나씩 글을 써주기 시작했다. 연말이 되니 글을 책으로 묶어주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렇게 해서 첫 번째 내게 된 책이 ‘웰빙 기수련(氣修練)’이란 책이고 두 번째 낸 책이 ‘웰빙 병각리(病却理)’라는 책이다. 세 번째 출판된 책은 철학적 내용을 담은 ‘웰빙 부사의(不思想)’라는 책이 될 것이다.

포천시 가산면 출신인 이규임 전 중앙방송대학 교수는 정치학박사로 한국영상제작학회 회장, 서울산업대학 교수로 활동중이며 연재된 글은 세 번째 출판된 ‘웰빙 부사의(不思想)’라는 책에 실릴 원고를 게재해 나갈 계획이다. (편집자주)

“철학(哲學)이 없다”는 말을 들어보았을 것이다. 또 “모든 학문은 철학으로 통한다”는 말도 들어보았을 것이다. 그리고 “철학은 학문의 꼭지”라는 말도 들어보았을 것이다. 다 맞는 말이다. 김이 무르무르 나는 [솔부경의 꼭지]를 잡고 솔부경을 들어올려 보라. 무엇이 보이겠는가? 솔 안에 들어있는 모든 것이 다 보일 것이다. 철학도 마찬가지이다. ‘솔부경의 꼭지’를 잡고 솔부경을 들어올리면 솔 안에 있던 모든 것이 한눈에 들어오듯이 ‘철학적 (哲學的)인 눈’으로 세상을 보면 세상의 모든 이치가 한눈에 보인다는 데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다. 또 모든 학문은 철학으로 통한다” 하는 것은 어떠한 학문이든지 ‘철학적인 용어(用語)’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하고 철학적인 용어로 정리가 되어야 한다는 데서 그리 말하는 것이다.

‘철학적인 용어’로 표현할 수 있어야 일목요연(一目瞭然)하게 정리가 되고 모든 사람에게 직감적(直觀的)으로 전달될 수 있어야 한다. 철학이 없다면 “철학이 없다”라고 할 때에 철학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여기서 말하는 철학이란 ‘기준(基準)’을 말하는 것이다. ‘자대’를 말하는 것이다. 세상을 재는 자대를 말하는 것이고 세상을 들여다보는 기준을 말하는 것이다. 일반 사람들이 “철학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이처럼 ‘기준’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고 ‘자대’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다.

기준이 없고 자대가 없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 때에 그 말에 일관성(一貫性)이 없고 주관성(主觀性)이 없다는 말이다. 일관성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 때에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랬다 저랬다’ 한다는 것이고 주관성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 때에 자신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것에 대해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눈치’를 보고 ‘남의 말’에 신경을 쓰면서 말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동양철학(東洋哲學)이 어떻고 서양철학(西洋哲學)이 어떻고 하는 이야기를 한다. 그런데 서양철학이 따로 있고 동양철학이 따로 있고 그런 것이 아니다. 동양이나 서양이나 ‘기준’이 있는 것이고 ‘자대’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기준이나 자대는 ‘같은 것’이다. 표현만 다를 뿐 그 내용(內容)은 같은 것이다. 그 본질(本質)은 같은 것이다. 아니 ‘같은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사람’을 이야기하고 ‘사물(事物)’을 이야기하고 ‘자연(自然)’을 이야기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자연의 이치(理致)와 자연의 섭리(攝理)를 이야기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규임
한국영상제작학회 회장

本質을 추적하는 것